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30분

찬송 / 찬122, 살아계신 주
찬109, 그 어린 주 예수
개회기도 / 김성호 집사
환영 및 교회소식 / 인도자
헌금기도 / 이동수 목사
설교 / 이동수 목사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누가복음 2:8~20)

성탄특별찬양 / 진행- 정석운 목사

1. 어린이 컵타 '천사들의 노래가'
 2. 로이스반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3. 롯반 수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4. 믿음반 중창 'Oh! Happy day'
 5. 정재학, 김민주 부부 '마라나타'
 6. 루디아반 찬송 '동방에서 박사들'
 7. 찬양대 '넉넉히 이기느니라'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폐회기도 / 이동수 목사

수요저녁예배

저녁 7시 30분

찬송 / 침27, 침31
개회기도 / 김성호 집사
교회소식 / 인도자
중보기도 / 신장호 집사
설교 / 정석운 목사
민수기 강해
(민수기 35~36장)
폐회기도 / 정석운 목사

감사 제목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무명 -

2018년 성탄감사예배

12월 25일(화) 오전 11시

찬송 /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통 115)
☞ 찬송 /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통 122)
대표기도 / 이철환 집사
찬송 / 123장 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통 123)
환영 및 교회소식 / 인도자
헌금 /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통354)
목회기도 / 이동수 목사
찬양 / 찬양대
설교 / 이동수 목사
우리가 성탄에 깨달아야 할 세 가지 (마태복음 1:18~25)
폐회기도 / 이동수 목사

☞ 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 ☐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주일학교 사역자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 ☐ 원로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위해
- ☐ 건강 회복 위해 - (건강-이상열, 변경자, 이성수, 이미경, 이철환, 서정기, 김성호, 류정희, 김금자, 이송녀, 이정순, 서명중), (통풍-권정혁), (뇌경색-이안자, 정효순, 이동수 목사), (허리통증-권순자, 오정희), (전신경화증-이연화), (척추손상-장옥자), (뇌출혈-하임자 어머니), (골절수술회복-권순자), (디스크 수술회복-임봉규, 이화진), (부정맥-김홍식), (손부상 회복-안봉순), (수술회복-이영자 모친), (편도수술회복-화이트 손)
- ☐ 교회 출석 위해 - 황승하, 배상수, 이동석, 최희숙, 이승철, 김수철
- ☐ 영혼 구원 위해 - 손우현, 황영도, 권택진, 이영훈, 김명신, 박정은
- ☐ 멀리 있는 지체 - 권기범(캐나다), 라이언(군복무), 송지명
손, 서승완, 박찬중, 김소현, 박누리, 이하림
- ☐ 성도 사업 위해 - 서점근(공인중개사), 이상열(석급당), 윤명철(개인택시)
이철환(전세버스), 송익범(코리아머쉬룸), 최희숙(미셀헤어룩)
김형수(into Spline), 박병준(공간인테리어), 정재학(원봉 정수기대리점)
이경주(제주 다미안)
- ☐ 대학입시 수험생을 위하여 - 강주만, 이현지

● 왜 이 교회는 개역성경이 아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나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출간된 후로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성경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영어권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번역되지 않아 모든 교회들이 개역성경을 사용했지만, 2003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깝고,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왜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나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 때는 사도신경이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가톨릭교회가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채택한 니케아 신조를 발전시켜 주후 750년경에 완성한 것으로, 세계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통합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도 성경적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가톨릭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포함된 사도신경을 예배에 암송하지 않습니다.